

(2011 SK텔레콤 행복나눔 김장행사)

격 려 사

찬바람이 불어 겨울을 재촉하는 길목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더욱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을 우리의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을 보니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따뜻한 나눔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유정성 목사님, 대한성공회 서울관구장 김근상 주교님 그리고 오늘 행사가 성대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SK텔레콤 하성민 대표님과 먹거리나누기 운동협의회 공동대표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부처님께서서는 불행은 채워지지 않는 탐욕을 좇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내 것을 아무 분별없이 나누어 주고, 나 이외의 것에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눔을 통해 행복을 향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위한 자유와 복덕을 얻는 길이며, 사랑이며 화합인 것입니다.

이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물질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고, 나만의 행복이 아닌, 우리 모두가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실천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종교계와 기업, 시민단체가 하나 되어

따뜻한 손길로 전하는 김장 김치는 소외된 우리 이웃의 마음에 행복을 심는 소중한 씨앗이 되어 줄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채신의 나눔결사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과 같이 너와 나의 구분 없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작은 나눔이야말로 나눔결사 실천의 첫 걸음입니다.

모쪼록 이 행사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나눔’이 절로 넘치고 가득 퍼져 밝은 사회, 건강한 나라를 구현해내는 원동력으로 회향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의 행사가 있기까지 물심양면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SK텔레콤 하성민 대표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와 SK텔레콤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오늘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년 11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